



삼성전자, 독일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펼쳐

삼성전자가 독일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중희 부회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호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 한중희 부회장(왼쪽)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H-점프스쿨' 10기 발대식 개최

현대차그룹이 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10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한용빈 현대차그룹 부사장, 이의현 사단법인 점프 대표 등 행사 관계자와 임직원 멘토, 10기 대학생 멘토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에 거주 중인 대학생 멘토 200여 명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현대차그룹

KAJA, 최대열 11대 회장 선출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최대열 아시아경제 기자(사진)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아시아경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한국기자협회 아시아경제 지회 회장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부터 협회 올해의 차선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재웅 기자 juk@



지프 '유럽 올해의 차 '어벤저' 구경하세요'

지프는 오는 3월 14일까지 전국 지프 전용 전시장 7곳에서 어벤저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어벤저는 지프 브랜드에서 처음 만드는 순수 전기 SUV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사전계약 한달만에 1만대 돌파, 브랜드 최초로 2023 유럽 올해의 차에도 선정됐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지프

중진공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사업종료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개편했다.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의선 회장, 12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현대차그룹>

워싱턴 주미대사 초청 행사 참석 세계박람회 구현 최적 도시 강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아프리카·카리브해 주요 국가 대사들에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지지를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주요국 주미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해 각국 대사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초청행사는 아프리카·카리브해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돈독히 하고, 부산엑스포 주제와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마셜제도 등 12개국 주미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이 로날드 샌더스(Ronald SANDERS) 앤티가바부다 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가 참석했다.

정 회장과 함께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신재원 사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부산은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이 많은 준비된 국제도시"라며 "정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국제사회 일원들과 함께 2030년 해양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기후변화 위기 등을 극복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준비 중인 부산세계박람회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다양한 위기 극복과 단기간의 경제성장 등을 이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부산이 세계박람회 의미 구현을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

했다.

정 회장은 각국 주미대사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전동화 체제로 전환 중인 미래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아울러 현지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보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8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를 구성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현지 방문과 방한 인사 면담 등을 통해 20여개국 고위급 주요 인사들을 40여회 접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 운영 차장으로 제공한 제네시스 G80·GV70 전동화 모델 등에는 부산엑스포 홍보문구를 랩핑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시각장애인용 내비 '지아이 플러스'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

SK텔레콤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수여하는 'GSM 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2023'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일(스페인 현지시간) 밝혔다.

먼저 '접근성·포용성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으로 추위 인공지능(AI) 기술 'VLAM'을 적용한 고정밀 위치 기반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지아이(G-EYE) 플러스' 개발 관련해 수상했다.

다른 하나는 '도시를 위한 최고의 모바일 혁신 사례' 부문으로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 관련해 상을 받았다.

SKT는 LBS테크·사피온 코리아와 함께 ICT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ESG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성·포용성



SK텔레콤은 세계적 권위의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2023'에서 소셜 벤처 LBS테크·사피온 코리아와 함께 위치 추위 AI 기술 'VLAM'을 적용한 고정밀 위치 기반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G-EYE 플러스'로 수상에 성공했다고 1일(바르셀로나 현지시간) 밝혔다. /SKT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SKT와 LBS테크·사피온 코리아는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이 대부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해 정확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

음에 착안,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글라스, 디지털 트윈 등을 위해 개발한 VLAM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적용해 정밀한 위치 추위로 실효성 있는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G-EYE 플러스'를 개발했다.

'G-EYE 플러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반바퀴만 돌리면 평균 1m 오차로 현재 사용자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G-EYE 플러스'를 사용함으로써 건물 인근이 아닌 출입문 또는 진입로 바로 앞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SKT가 수상한 분야는 '도시를 위한 최고의 모바일 혁신 사례(Best Mobile Innovation for Cities)'로, ICT를 바탕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이 나 서비스에 주어지는 상이다.

SKT의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는 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이동 상태 및 수단 등 위치 지능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SKT는 '리트머스'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자원 불균형 해소 ▲교통 및 환경 문제 해소 ▲도시 안전 확보 ▲미래 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SKT는 이번 수상으로 '접근성·포용성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유영상 SKT 사장은 "SKT의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인정받아 기쁘다"며, "SKT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토대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코트라 리스본무역관 개소... "수출기회 발굴"

유정열 사장 "현장 애로 적극 해소"

KOTRA(코트라)는 지난달 2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리스본무역관 개소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정열 코트라 사장, 조영무 주포르투갈 대한민국대사, 루이스 엔히크스 포르투갈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후이 비냐스 포르투갈 외교부 차관보, 포르투갈 전현직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코트라와 포르투갈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상호 정보 교류와 양국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지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교역량은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2022년 기준 두 배 이상 커지며 수출기업들의 지원 문기가 꾸준히 늘었고, 포르투갈 관계부처의 무역관 개소 요구도 그만큼 컸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현지 시장의 수출 기회를 발굴하고 통상 규제 등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수출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인사

◆유진그룹 ◇사장 승진 △그룹경영혁신본부 유석훈 ◇상무 승진 △건자재담당 성백민 △레미콘담당 손현대 ◇상무보 선임 △남부권역장 박철수 △회계팀장 심재영 △홍보팀장 임진택 (승진 및 선임-동양) ◇전무 승진 △외주구매·예산건적담당 권용대 △경영관리본부장 황승률 ◇상무보 선임 △인사팀장 안준수 △재무기획담당 겸 성장전략실장 황부익 (승진 및 선임-유진투자증권) ◇상무 승진 △부동산개발실장 김관석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챔피언 스타운지 금융센터장 조희선 ◇상무보 선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구환 (승진 및 선임-유진투자증권) ◇상무보

선임 △기획관리본부장 장동훈 △정보전략영업본부장 장만우 (승진 및 선임-유진로지스틱스·유진소닉) ◇전무 승진 △딜리버리사업본부장 유재승 ◇상무 승진 △수송본부장 배재일 ◇상무보 선임 △기획팀장 국문일 △재무팀장 장종식 (승진 및 선임-동화기업) ◇상무 승진 △지배인 김용원 (승진 및 선임-유진엔) ◇상무 승진 △관리담당 윤남일

부음

▲유육자씨 별세, 박인수·은주·은숙씨 모친상, 장광근·이석용씨(NH농협은행장) 장모상=1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월 3일,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2030-4444